

송파구청, 국내 최초 페타이어공원 개장

서울특별시 송파구청(구청장 김성순)은 관내 문정동 2-5 문정중학교 앞에 국내 최초로 페타이어를 이용한 공원을 조성하였다. 이는 폐기물의 처리뿐만 아니라, 예산을 절감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창출한 지방행정의 본보기라 할 수 있으므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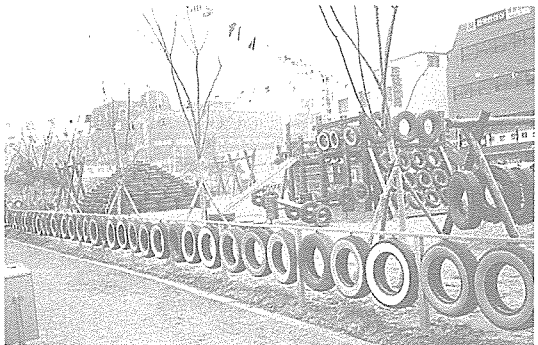
의 노고에 먼저 찬사를 보낸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놀이터라면 철제 구조물에 페인트를 칠하거나 목재 또는 콘크리트로 된 놀이기구를 연상할 수 있다. 페타이어를 설치하긴 하지만 그 수량은 극히 한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93년 11월 29일 개장한 “문정 타이어공원”은 페타이어를 주제로 만든 아마도 국내 최초의 어린이 놀이터가 아닌가 생각된다.

종래의 놀이터는 딱딱한 것, 다치기 쉬운 것을 연상케 하지만, 우선 이 페타이어 놀이



[공원입구 기둥도 페타이어로 만들었다.]



[울타리는 소형페타이어에 페인팅을 하였다.]

관할구역내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페타이어를 골치 아픈 폐기물로만 보지 않고 재활용의 아이디어를 짜낸 송파구청장과 직원들

터는 위험하지 않아 친근감을 준다는 장점을 첫번째로 꼽을 수 있으며, 앞으로 각 시·도나 각급학교, 유치원 등에 보급이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많은 곳으로부터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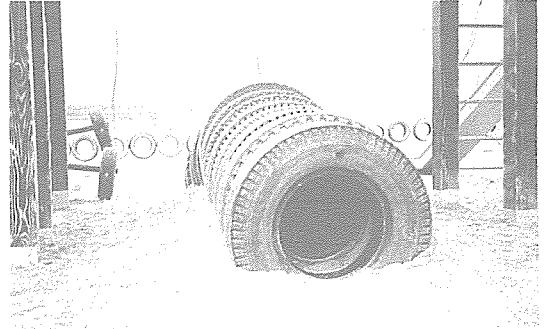
동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면 적 : 1,430m² (432평)
- 페타이어 소요량 : 대·소형 합계 1,500개 (타이탄 트럭 5대분 추정)
- 공사기간 : '93년 10월 12일~10월20일 (9일 소요)
- 소요예산 : 약 8천 6백만원
- 시 공 자 : 우람종합조경

(전화 : 573-0700)

시설의 종류로는 타이어 조형물로서 공룡, 로봇, 로켓 등이 있고 유희기구로는 그네, 시소, 출렁다리 등이 함께 붙어있는 타이어 종합놀이대, 타이어를 쌓아올려 만든 직경 6m의 피라밋, 타이어를 매달아 구멍으로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 너구리사냥과 타이어 장벽통과, 그리고 타이어를 타고 공중으로 날으는 원숭이 줄타기 등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의자, 휴지통, 공원이용 안내판, 울타리, 문기둥 등 편의·관리시설도 거의 원형의 페타이어를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공원 출입구 바닥은 타이어를 잘라서 깔

아 신발의 모래 등을 털 수 있도록 하였고, 울타리는 페인팅한 소형 타이어를 연결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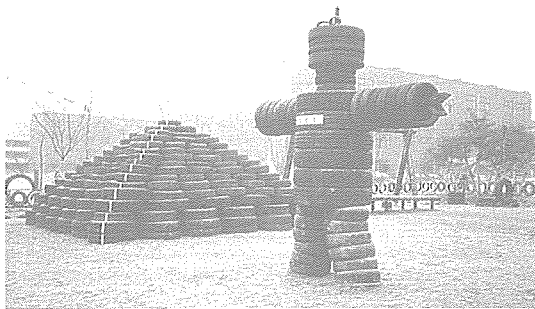


(너구리굴.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였다.)

페타이어를 주제로 한 놀이터로서 좀더 욕심을 낸다면 地面도 어린이의 신발이나 호주머니에 들어가 방안을 어지럽히는 모래 대신에 폐고무칩(콩알만한)을 깔거나 고무매트를 이용하고 차가운 쇠줄보다 페타이어로 만든 굵은 밧줄을 최대한 이용해 보는 것이 어떨는지, 또한 설치된 페타이어에 물이나 모래가 차지 않도록 밑부분에 구멍을 뚫는 등 미리 세심한 배려를 하긴 했으나 낙엽이 구멍을 막아 물이나 모래가 제대로 빠질 수 있는지 계속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형상물(로봇, 공룡 등)도 페인팅을 하는 것이 시각적인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전국 1천개소에 이와 같은 공원이나 놀이터를 조성할 경우 150만개의 페타이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93년도 페타이어 발생예상량 1천 2백만개의 12.5%가 되는 수량이다.

이미 우리 업계에서는 전국적인 페타이어 수거조직을 운영하고 있어 페타이어가 필요할 때에는 우리 협회 환경대책과 (전화 : (02)551-1901)에 문의하면 소요현장에 무상으로 공급이 가능하다. <협회 업무부>



(로봇과 피라밋. 기어올라갈 수 있다.)